개혁IV, 믿음 속 “일치”유전자 발견

(에베소서 2:1~18)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개혁IV, 믿음 속 ‘일치’ 유전자 발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개혁IV, 믿음 속 ‘일치’ 유전자 발견‘
요즘 한국의 정치상황이 점입가경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영호남이 분열되고 계층 간의 반목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했습니다. 인명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잔류 의원들 가운데 진박과 친박 사이에서 분열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이 분열되어 나왔는데,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는 친문과 비문이 대결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에서는 안철수파와 호남파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치를 그만둔 듯 보였던 손학규 씨도 정치권에 가세하며 제3세력을 결성하고 있고, 그 동안 UN사무총장으로 지내던 반기문 씨가 이 판에 가세한다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합집산 상호갈등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주의집중이 소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은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기가 찰 일입니다. 교황의 지배하에 있던 단일화 교회는 악마적이고 이단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대치되는 일이었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위적이고 필연적이었지만 개혁의 음지가 너무 컸습니

다. 잘못된 교황의 지배 하에서 하나였던 교회는 이제 과도한 분열의 역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시골 대학이 종교 개혁의 진원지인데, 바로 여기에서 개혁세력 내의 수없이 많은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대학의 동료교수였던 칼슈타트가 루터의 개혁을 보수적이고 온건하다고 비판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표방하면서 루터와 대립하게 됩니다. 또한 인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에라스무스 같은 개혁자들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으며, 칼슈타트보다 더욱 과격한 진보세력이었던 토마스 뮌처는 전통을 중시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서를 중시하던 개혁세력을 모두 거부하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며 더욱 더 과격하게 진보적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영주의 지배 아래에서 착취당하고 가난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결국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칼로 진압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로 인해 농민과 상공계급이 루터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독일의 교회는 그때부터 국가교회가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각 지역의 영주들은 가톨릭과 개혁파들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주들에 의한 개혁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며 분열이 말도 못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쯔빙글리는 루터의 성만찬공존설에 반대하여 상징설을 내세우며 갈라져 나왔는데, 이 쯔빙글리를 보수적으로 여기는 제세례파가 등장하여 급진개혁을 주장하였고 이들 가운데서도 다시 여러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제네바에는 캘빈이 등장하고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서도 각각 개혁이 일어났고 결국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교파를 다 셀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회사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세속주의와 회의주의는 종교개혁 때에 시작된 분열 현상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잘되자고 개혁을 했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일어났어야 했으되 그 후유증이 교회를 삼킬 위협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교회일치(Ecumenical)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일치운동을 하는 자들이 또한 갈라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지게 된 것도 바로 이 교회일치운동을 주장하는 WCC(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로 갈등하다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어쨌든 주님의 요구는 교회일치입니다. 공교회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 교회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공교회로서 존재하는 한 하나였을 것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교회일치운동이 정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도 요원해보이기만 합니다.
만약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로 일치될 수 있다면 정치 경제 군사 전쟁 등 모든 면에서 지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 교인을 적게 잡아서 600만이라고 해도, 이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좋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고 개인의 생활영역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일치운동을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일치 문제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은 이번에는 교회일치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일치는 결코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교파간의 대화나 사업 등의 협력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었더라도 얼마 못가서 균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일치는 당위적이고 마땅한 일이되 인위적인 교파간의 대화나 협력으로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회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 교파가 다르더라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일치는 이 교파들이 서로간의 미세한 교리의 차이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이 검증될 수 있다면 공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싶어 하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비록 우리가 일치라는 단어를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공교인으로 이루어진 공교회는 일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그 자체에 일치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진 교파 간에 차이점을 처리하여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믿고 나도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 있는 일치의 유전자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일치라는 단어를 모를지라도 일치할 수 있게 되는 유전자에 주목함이 개혁으로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일치운동에서 하듯이 인위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횡적인 일치는 마치 바벨탑을 쌓던 일치됨과 같습니다. 장담하건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일치는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속에 있는 일치의 유전자에 주목한다면 저절로 교회는 일치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인위적인 일치는 밀가루를 반죽으로 뭉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일치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각의 악기들이 조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올린 주자와 비올라 주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지휘자에게 집중할 때에 전체 오케스트라가 일치되며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마차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바퀴살이 일치를 이루겠다며 서로 붙어버리면 바퀴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각자의 바퀴살들이 축을 향하여 뻗어 있을 때에 바퀴 전체가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

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속에 들어있는 교회일치의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11~18절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본래 이방인이자 무할례자로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는 내막이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에베소 교회와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일치될 수 있었느냐는 것인데 바로 믿음 속에 들어있는 일치의 유전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는 구절에서 '공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마음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은 바울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계관 속에 교회일치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차원이 있고 그 위에는 공중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차원, 마음이라는 공중의 차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라는 말은 마음의 공백을 육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로 채우려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가족조차도 육체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물이나 사람 혹은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의 공백을 메꿀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면 마음을 주게 되고 그것이 마음을 채워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래 마음은 하늘과 육체의 차원 중간에 있으면서 육체가 어떤 것을 접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연합하여 육체가 만나는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욕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욕하는 결과가 분열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육체를 따르자 분열이 나타난 것입니다.

루터에게 칼슈타트가 반발하고 분열을 일으켜서 튕겨져 나온 것도 개혁을 육체로 몸소 실천해

나갈 때에, 루터가 지향하고 생각하는 개혁의 템포와 범위와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칼슈타트가 육체로 행동할 것을 마음으로 붙잡음으로 인해 루터와 분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웁니다.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힘이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공중의 차원에 있는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면서 마귀의 지배하에 우리 마음이 육체를 향하게 되었고,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이 붙잡고 반응하다보니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도 서로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음이 육체에 묶임으로 육체로 만나는 것들 중에 좋고 나쁘고를 분별하게 되었고, 좋은 것을 마음으로 끌어들이고 나쁜 것을 배척하게 된 결과 분열과 균열은 필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마음이 공중에서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아래에서 육체에 묶여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에 묶였다'는 것은 육체로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나쁘다고 판단되는 것은 밀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육체에 붙었기 때문이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위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육체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에 묶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육체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육체를 쫓음으로 죄의 상태가 된 우리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통해 주님을 따라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했던 마음이 육체로 내려와서 묶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체에 묶인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것을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믿음입니다.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육체에 묶여서 육체로 접하는 상황과 대상과 사람들에 반응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끌고 올라가셨음으로 인해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 육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앉힌바 되었습니다. 하늘에 앉힌바 된 마음은 육체로 만나는 일로 인해 분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도 마음이 육체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나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하늘을 보았던 것도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자에게는 설령 마음이 육체에 묶여 있는 자가 대적하더라도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 마음을 드림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균열이 생기겠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곧 땅에서 내 몫을 챙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충분한 내 몫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되시면 이 땅에 대해서 요구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분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일치의 유전자인 것입니다.

한편 땅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답을 줍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동선을 따라 가려는 마음의 움직임과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입니다.
또 4~6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고 이 욕구자체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으면 견딜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움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 허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유일한 대상이심을 뜻합니다. 또한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죽음도 하나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교파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하나 됨은 교파 간의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인정하

는 인위적 의도를 통해가 아닙니다. 오직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유가 통일되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각자가 참 믿음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서 육체에 매여 육체로 만나는 상황과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서 끊임없이 분열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육체와 마음의 결합된 상태가 죽음으로서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에 앉힌바 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나도 김 집사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쁨으로 제자리에 서있을 뿐이지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일을 조화롭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통일 자체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일치를 원한다면 각자가 하나님께로 가야할 것입니다

교회일치 운동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횡적인 대화나 협력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늘로 마음이 올라가면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시키실 것이고 그때에 교회도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와 교인의 통일이 어마어마한 일 같지만 각자가 십자가 생활화에 주력하다 보면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가깝고도 빠른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일치 운동은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과 같은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때에 균열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쪼개신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쪼개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오직 기쁨으로'라는 말로 확정될 수 있으며 일치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별도의 노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는 근본적으로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모든 방면에 개혁의 핵심이요 요체요 유일한 행동강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나 한 사람이 열중함으로서 온 세계의 교회일치에 일익을 담당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